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니체의 양심 개념

-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유명지

니체의 양심 개념

-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A Study on Nietzsche' s The Concept of the
Conscience

:Focusing on *Genealogy of Moral*

202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유명지

니체의 양심 개념

지도교수 설 헌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유명지

유명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설현영 (인)

2020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i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II. 양심, 원한, 죄의 문제	 4
1. 양심의 기원과 계보학적 탐구	4
1) 기존의 도덕 개념 비판	4
2) 계보학적 탐구 방법	6
3) 양심의 기원	8
2. 원한, 죄, 그리고 양심의 가책	11
1) 형벌과 죄의 기원	12
2) 원한과 양심의 가책	14
 III. 금욕주의적 이상과 가치전도	 16
1. 금욕주의적 이상	17
1) 철학자의 금욕주의적 이상	17
2) 성직자의 금욕주의적 이상	18
2. 가치 전도와 새로운 도덕의 정립	22
1) 도덕에서의 가치 전도	22
2) 인간과 삶을 긍정하는 도덕의 정립	24

I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A Study on Nietzsche' s The Concept of Conscience

-Focusing on *Genealogy of Moral*-

Myeong Ji Yu

Advisor: Prof. Hunyoung Sul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origin of moral value such as guilt, punishment and **ressentiment**,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idea of bad conscience. Nietzsche traces the origins of concepts such as guilt and punishment, showing that originally they were not based on any sense of moral transgression. Rather, guilt simply meant that a debt was owed and punishment was simply a form of securing repayment. He traces the different genealogies of conscience and bad conscience in *Genealogy of Moral*. Bad conscience grows as the 'sick man of **ressentiment**'. And He traces episodes in the evolution of moral concepts with a view to confronting moral prejudices, specifically those of Christianity and Judaism. At present, we direct our bad conscience primarily toward our animal instincts, but Nietzsche urges us instead to direct our bad conscience against the life-denying forces that suppress our instincts.

Nietzsche's thinking on justice and punishment explores the motives and forces which lie behind moral concepts and social institutions. Nietzsche develops his own powerful critique of moral concepts such as responsibility and guilt. Nietzsche insists that punishment has quite different purposes and meanings at different times, so that any single explanation or justification is

inadequate.

Only with the rise of slave morality did these moral concepts gain their present meanings. Nietzsche identifies bad conscience as our tendency to see ourselves as sinners and locates its origins in the need that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o inhibit our animal instincts for aggression and cruelty and to turn them inward upon ourselves.

Nietzsche aims at freeing higher human beings from their false consciousness about morality, not at a transformation of society at large. Nietzsche's theory is the value-system of the strong, good and noble person which affirms his own life and always tries to overcome his actual life, while the traditional ethical system consist of self-negation and the decadent values.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인간의 도덕성은 양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양심의 가책은 인간의 공동체적인 성향을 대변하고, 도덕적 행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도덕의 개념에서 양심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자, 인간의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양심에 대한 논의들은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의 철학에서는 양심을 인간의 착한 본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덕 학자들은 이 양심을 보존하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을 인간의 도덕성과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양심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책임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서, 도덕성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나 관용 등과 같은 비이기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덕 학자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양심과 공동체적 비이기성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덕 학자들은 양심의 기원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채, 그것을 공동체적인 성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왔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무조건적으로 절제해야 하는 것인데 반해서, 비이기적인 행동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해석은 기존의 도덕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성중심주의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기존의 도덕 개념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적인 측면만 강조해왔다. 이성 중심의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억압했고,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도 억압했다. 현대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소외현상이나 허무주의는 기존의 도덕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성 중심의 선입견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경시하는 도덕적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비이기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을 인간다운 것이라고 믿었던 기존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새로운 가치로 전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학자들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선입견 없이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본성과 양심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니체의 도덕 비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는 인간의 양심과 동정심, 비이기성 등을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했지만, 니체는 그것들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게 동정심이나 이웃 사랑 등은 사회적인 구속으로 인해 억지로 형성된 도덕 개념이며, 비이기성이나 양심의 가책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오히려 반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에게 이제까지의 도덕 개념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왜곡된 형태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도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선으로 여기는 기존의 도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의 철학은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탐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예시로 도덕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니체는 도덕을 계보학적으로 탐구하면서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양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니체는 기존의 역사 탐구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계보학적 탐구 방식을 통해 도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가 도덕의 기원을 탐구한 이유는 이제까지의 전통 철학과 역사들이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심의 기원을 살펴보면 양심은 원래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나 비이기적인 성향을 의미하지 않았다. 양심은 오히려 건강하고 지배적인 특정한 사람에게서 등장한 것이었다. 양심을 지닌 자는 기존의 철학에서 정의되는 성직자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강하고 귀족적인 특성을 지닌 자이다. 이러한 양심 개념이 동정, 연민, 이웃 사랑 등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원한의 인간이 강한 자의 덕목들을 사악한 도덕 개념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강한 자들에게 복수심을 지니고 있었던 원한의 인간은 강한 자들의 양심을 악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갚아야 하는 나쁜 죄라고 여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심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공동체적이고 비이기적인 가치만이 인간다운 도덕으로 남게 됐다.

이런 원한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입견을 그대로 계승한 전통적인 도덕 개념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개념들을 인간적인 것이라 믿었고, 그것을 인간의 양심과 연결지어 해석했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지배적인 성향을 비인간적이라고 여기는 금욕주의는 원한의 인간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다. 현대의 도덕 개념은 이러한 원한의 인간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인적인 본성을 무조건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선입견은 인간이 지니는 욕구나 충동, 신체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방해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그 자체로 부정하여 인간에 대한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금욕적인 도덕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비판할 수 있는 반도덕적인 사유가 시도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다양한 가치 해석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니체의 도덕 비판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 개념과 기독교적인 윤리를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그는 이제까지의 도덕 개념을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비판하는 대신,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자 했다.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는 양심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대해 긍정을 가져온다. 이는 인간의 삶을 허무적인 것으로 만드는 기존의 도덕 개념을 비판하고, 인간의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창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현대의 도덕 교육도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기존의 도덕 교육이 인간 자체와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니체의 탈중심적인 사고와 도덕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니체가 왜 기존의 도덕 가치를 비판하고 그것을 전도시키려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고 했는지 양심이라는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 현대의 철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니체가 정의하는 양심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와 그의 철학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논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글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주요한 텍스트로 삼고,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니체의 양심, 원한, 죄, 양심의 가책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선입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철학으로서 새로운 도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장의 1절에서는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그 후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인간 자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도덕의 계보학이 지니는 탁월성을 토대로 도덕 개념의 발생사를 '가치의 전도'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니체의 계보학을 통해 양심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니체가 생각했던 진정한 도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장의 2절에서는 죄와 양심의 가책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니체가 말하는 원한 도덕과 가치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뒤, 이를 기존의 도덕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장 1절에서는 이제까지의 철학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금욕주의적 이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이 지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치의 전도를 시도했다. 또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상을 추구하는 도덕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삶 자체를 긍정하는 새로운 도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간을 위한 도덕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예시를 2절에서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기존의 도덕 개념은 초현실적이고 금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덕이었다는 니체의 도덕 비판에 비추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도덕이란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한다. 미래 철학자들은 니체가 주장한 양심 개념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조해야 한다. 또 앞으로의 도덕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결론에서는 미래의 철학과 도덕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양심, 원한, 죄의 문제

1. 양심의 기원과 계보학적 탐구

1) 기존의 도덕 개념 비판

니체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범한 도덕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를 시도했다. 기존의 철학자들은 도덕의 기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을 선한 존재, 이성적인 존재, 도덕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가정하고 도덕 이론을 펼쳤다. 이러한 도덕적 선입견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억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에 무의미함을 가져오는 초현실적인 도덕 개념으로 나아가게 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도덕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이 지녔던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칸트의 도덕 개념을 비판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을 질적으로 구분시켜 주는 것은 도덕적 이성의 유무이다. 도덕적 이성은 인간이 지닌 특수한 능력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한 개인이 도덕적 이성을 지닌 다른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이성을 통해 알게 된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다. 즉 자신의 이성을 통해 알게 된 도덕 법칙을 실천하고 복종하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이다.¹⁾ 도덕적 이성의 주체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욕구에 반하면서까지 비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을 인간다운 행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도덕적 이성이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인간은 자신의 자

1) 최호림,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고찰」, 144쪽 참조.

을 얻게 된다.²⁾ 양심이란 바로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시키고 비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판단 능력이다.

칸트에게 양심이란,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능력이다. 그는 양심을 도덕 법칙에 의거하여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의무가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 양심에 구속받는다 함은 도덕적 의무들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은 인간의 행위와 의무법칙의 합치 또는 상충에서 유래하는 쾌 또는 불쾌의 감수성이다. 칸트는 양심이 없었다면 인간의 윤리는 궤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도덕 개념을 위선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 도덕의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은 비이기성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다움의 핵심이지만, 니체가 생각하는 도덕은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의 지배적이고, 동물적인 성향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고, 자신의 도덕 비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했다.

니체는 도덕의 토대를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두고 있는 공리주의자도 비판했다. 영국의 심리학자들⁴⁾이나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의 개인적 이기심을 공동체적인 윤리로 확장할 때, 비이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전체의 이익을 도덕 행위의 근거로 삼았다.⁵⁾ 그러나 니체의 통찰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추론을

2) 강병호, 「칸트 윤리학과 니체의 도덕 비판:자기기만, 존중과 거리의 파토스를 중심으로」, 30쪽 참조.

3) 권이선, 「칸트 양심론의 본질에 관한 고찰:양심무오설과 양심법정설의 연계적 관점에서」, 35-36쪽 참조.

4) 니체는 1876년에서 1878년 사이에 집필했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도덕의 기원에 관한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에 동기를 준 최초의 책이 1877년에 출판된 파울 레 박사(Dr. Paul Ré)의 『도덕 감정의 기원』이었음을 1887년에 쓴 『도덕의 계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니체는 이 책만큼 문장 하나하나, 결론 하나하나를 마음속으로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읽은 책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이 책에서 제기된 이론은 매력적인 힘으로 자신을 강하게 끌었음을 술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덕의 발생사를 연구한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지적 자부심을 '습관의 타성', '망각' 속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는 인간에 대한 경시본능을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파울 레 박사는 인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아니라 이성에 대한 근대 철학의 도덕적 선입견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그를 포함한 다른 영국 심리학자들의 도덕 발생사가 니체 자신의 독자적인 도덕의 기원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화란, 「니체의 도덕 철학에 관한 연구 :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17쪽 참조.)

5) 영국 심리학자들의 주장처럼 이타적인 행위를 통한 다수의 이익이 도덕의 기원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니체는 이 또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말하는 도덕의 기원은 니체가 보기에 최초의 역사적 기원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타인의 비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음으로써 그 행위를 찬양하고, 자신도 선한 행위를 하려 하는 경향은 도덕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국의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인 현상을 보편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을 뿐, 도덕의 기원을 철저히 파고들지는 못했다. (이화란, 「니체의 도덕 철학에 관한 연구 :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17쪽 참조.)

보여주고 있다. 비이기적 행위에서 오는 쾌락과 개인적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쾌락은 그 자체로 모순된 개념이다. 니체는 인간의 비이기성을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과 연결짓지 않았으며, 인간의 비이기성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생태학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이제까지의 도덕 학자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다른 차원에서의 인간다움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도덕 개념은 긴 역사에 걸쳐 훈육된 인간의 비이기적 행동을 인간만이 지니는 특수한 능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인간의 비이기적 행동을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경향성으로 보고, 양심의 가책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여 니체는 도덕의 발생사를 좀 더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비이기성이 어떻게 후천적으로 생겨났는지 밝히고자 했다.

칸트를 비롯한 영국 심리학자들이 연속적으로 도덕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의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의 기원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인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비이기적인 도덕을 인간다운 도덕이라고 믿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학자들에 반대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보다 본성적인 측면에 집중했다. 기존의 도덕 개념은 인간의 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체계를 믿어왔다. 이러한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수정하기 위해 니체는 도덕의 계보를 연구했다. 그는 역사적, 언어학적, 심리적, 생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도덕의 근원을 추적했다.

2) 계보학적 탐구 방법

니체는 인간의 도덕성을 비이기성으로 합리화하려는 근대 철학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도덕의 기원을 이성 위에 근거 지우려고 하는 철학적 시도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다.⁶⁾ 그와 같은 시도는 이성을 통한 세상의 합리화이며, 이성으로 해석 불가능한 우연적인 사건들이나 인간의 자연적 본성, 충동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성이나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 기존의 역사적 탐구 방식을 거부하고 도덕의 기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기 위해 역사의 우연성, 불확정성, 불안정성 등을 모두 수용했다.

계보학은 기존의 철학과는 다른 역사의 탐구 방식으로, 전통 형이상학을 그 내면으로부터 비판하고, 동시에 새로운 이성(즉, 신체적인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실험적 사유의 방법론이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이 지니고 있던 기본전제조건인 -이성, 의식, 주체, 자아, 물자체와 같은- 온갖 형태의 토대를 해체하고 인간을 합리적인 대상이 아닌 충동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파악했다.⁷⁾ 니체가 보여주는 도덕의

6) 권정기, 「르상티망」, 66쪽 참조.

계보학은 인간이 지닌 신체적인 것의 다양성을 토대로 하여, 합리성이라는 한 가지의 측면이 아닌 어떤 주장이나 사건, 성질 등이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니체는 도덕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인 힘의 관계들로부터 생성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서양 형이상학에서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이성과 진리를 우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니체는 역사학자처럼 단일 사건들의 연대순의 연속이나 특정한 국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그것들의 특별한 측면, 즉 그 안에 포함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역학을 선택하여 분석한다.⁸⁾ 도덕을 발생시키는 연원이나 출처를 인간의 심리에서 찾음으로써, 그는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관심이었던 인간의 본능과 충동, 원한이라는 도덕 감정 등이 지금의 도덕 개념을 형성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도덕 학자들이 경시했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그들의 제한된 시야를 넓혀준다. 결국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은 도덕 그 자체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도덕학을 거부하고 도덕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 주목하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보여주는 방법론이다.⁹⁾ 니체의 계보학은 최고의 선이라는 가치로 인해 가려진 인간의 이면의 성질들을 기호 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 되찾으려 하고 있다.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¹⁰⁾

첫째, 역사 계보학은 현시대에 보편 진리로 부각되는 이론·관점·관념들의 이면에 은폐된 그것의 과거 흔적들을 추적한다. 그리하여 그 진리 기호들이 처음에 누구에 의해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했고, 어떤 힘들에 의해 어떻게 유지·변형되어 왔는가를 드러낸다. 그리고 발생·변형 과정이 현대인들에게 은폐되어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즉, 역사의 표면에 드러난 주장과 이면에 망각된 성질들 사이의 관계를 해독한다.

둘째, 심리 계보학은 인간이 신뢰해온 자아·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된 것이며, 그것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또한 의식의 인식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 이외의 정신활동들에 관심을 기울여 그것의 정체를 드러낸다.

셋째, 생리 계보학은 절대적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의 이면성이 삶에의 의지인지 허무에의 의지인지, 그것의 생리적 건강 상태를 판독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진리로 믿고 따를 경우, 인간 삶이 고양될 것인지 왜소해질 것인지를 진단한다.

넷째, 언어계보학은 존재 일반을 정리하게 하는 의미들이 어떠한 '의미 작용·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특정한 문법 구조가 사유에 미치는

7) 이진우, 「계보학의 철학적 방법론 : 니체와 푸코를 중심으로」, 144쪽 참조.

8) 권정기, 「르상티망」, 67쪽 참조.

9) 백승영, 「양심과 양심의 가책, 그 계보의 차이」, 111쪽 참조.

10) 이창재, 『니체와 프로이트』, 40-41쪽 참조.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계보학은 역사 속에 출현해 온 대부분의 진리와 가치 기호들이 그 발생 초기에는 진리성과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되다가,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갑자기 새로운 중심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지녀왔음을 주시한다. 즉 철학의 개념에 역사적이고 언어 구조적인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서양 형이상학의 기본 전제인 이성, 의식, 주체 등의 개념들을 철저하게 해체할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적인 능력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의 철학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비이기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으로 보았다. 이런 가치 판단은 전통 도덕의 단일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다양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니체는 기존 철학에 대한 반이성주의를 주장하면서¹¹⁾ 인간에 대한 진정한 탐구를 위해 객관적인 역사 탐구 방식이 아닌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국지적인 비판형식을 사용했다.¹²⁾ 니체의 계보학은 본래적 순수성을 지닌 실체(형이상학적 허구)를 탐구하기보다 어떤 기원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체험하는 사건들의 존재 조건들을 제공하는 다양성들, 즉 힘들의 복잡적 관계를 해명했다. 그의 계보학은 존재의 구체적, 실천적, 역사적 조건들을 밝히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¹³⁾

3) 양심의 기원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를 토대로 양심의 기원을 고찰했다.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는 양심을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원으로 보거나, 인간의 비이기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신학의 경우에는, 인간이라면 무조건 비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양심의 가책이나 원죄를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제시했다. 칸트의 경우, 신학이라는 도덕적 기초에서 벗어나 도덕 그 자체만으로 형이상학적 신념의 기초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¹⁴⁾ 그러나 그는 도덕적 행위의 근원을 설명할 때 신학적인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보편적인 도덕적 행위의 법칙을 신에게서 찾지 않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체는 칸트가 밝히지 못했던 도덕적 행위의 근원을 찾기 위해 양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갔다. 니체가 생각하는 양심은 인간의 비이기적 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니체의 해석에 따르면, 양심은 인간의 기억하는 능력과 관련되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과 관련된 것이지 공동체를 위한 도덕 감정은 아니다. 니체는 양심에

11) 이광래, 「니체와 푸코: 니체의 상속인으로서의 푸코」, 19쪽 참조.

12) 이광래, 「니체와 푸코: 니체의 상속인으로서의 푸코」, 24쪽 참조.

13) 이광래, 「니체와 푸코: 니체의 상속인으로서의 푸코」, 23쪽 참조.

14) 최중천, 「니체철학에서 양심의 가책 : 『도덕의 계보』 「제2논문」을 중심으로」, 87-88쪽 참조.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인간의 심리적 전제를 보여준다.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스스로 인간에게 부여한 바로 그 역설적인 과제 자체가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관한 본래의 문제가 아닐까?"¹⁵⁾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말은 역설적인 용어이다. 본래 망각을 하는 것은 동물의 자연적인 현상 또는 건강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망각은 일종의 적극적인 저지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정신적 동화와 육체적 동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얻은 것들을 정신적으로 동화하거나 육체적으로 동화시키면 그것은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고 무의식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망각은 단순히 타성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며, 고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식 아래의 활동들이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의식의 백지상태를 만들어주는 능력이다.¹⁶⁾

반대로 기억은 망각을 제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욕 상태로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래적 의지의 기억"¹⁷⁾이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망각을 제거하고 기억 능력을 기른다. 동물은 살아가면서 낯선 상황에 직면하고, 때로는 자신이 의도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미리 예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무엇이 우연적이고 무엇이 필연적인지, 또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인간은 기억이라는 능동적인 상태를 통해 앞으로의 일을 계산, 산출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때 기억이라는 행동에는 '나는 하고자 한다'라는 능동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나는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¹⁸⁾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기억하는 능력을 기른다. 인간은 반복행동이나 충격 요법 등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¹⁹⁾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망각은 규칙적이고 필연적인 방법을 통해 제거된다. 이때 인간은 스스로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능력은 나중에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덕목으로 발전하게 된다. 니체가 말하는 책임의 유래는 바로 이 기억하는 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5) 니체, 『도덕의 계보』, 395쪽.

16)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17) 같은 책, 같은 쪽.

18) 같은 책, 같은 쪽 참조.

19) 니체에 의하면, 인간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수단이 풍습의 윤리이다. 풍습의 윤리는 인간에게 사회적 강제라는 의복에 힘입어 실제로 인간을 모두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니체, 『도덕의 계보』, 395쪽 참조.)

니체는 인간이 풍습의 윤리나 사회적 강제라는 방법을 통해 기억하는 능력을 길렀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풍습의 윤리라는 반자연적인 강제를 통해서 책임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적 개인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이 주권적 개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주권적 개인은 풍습의 윤리를 벗어던지고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는 강한 인간만이 될 수 있었다. 즉 주권적 개인이란 행위의 결정권이 풍습의 윤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자이며, 사회적 강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독립된 의지를 지닌 자를 말한다.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자는 자유의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었다. 니체는 주권적 개인만이 진정한 의미의 양심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⁰⁾

주권적 개인만이 지닐 수 있는 이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특정한 개인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주권적 개인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을 강함의 척도로 여겼다. 다시 말해 망각이라는 자연적 의지를 이겨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에겐 강함과 존경을 느꼈다. 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약함을 느꼈다.²¹⁾ 이런 책임 지는 행동은 주권적 개인의 자유로움의 지표가 되었고, 그것이 심연에 내려앉아 주권적 인간의 지배적인 본능이 되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육화된 지배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한 힘과 자유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전환 되어 '양심'이라는 새로운 덕목이 되었다.²²⁾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에 의하면, 주권적 개인은 자기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 능력을 가졌으며, 양심은 운명에 대항할 만큼의 용기와 강인함을 지닌 자만이 습득할 수 있는 덕이다. 반면 사회에서 강제하는 법이나 윤리를 따르는 자들은 양심을 지닐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자율적'과 '윤리적'이라는 용어는 배타적이어서 절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³⁾ 니체에게 자유란 힘에의 의지의 내재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자기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도록 융합하는 것이고, 새롭게 자기를 형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몸(신체)을 통해서 올바른 자기 인식의 단계에 이르고, 자신의 정신과 육체가 어우러져 힘에의 의지를 드러낸다. 니체에게 자율은 몸 주체의 생명 보호와 자기 실현을 말한다.²⁴⁾ 그러나 윤리나 법은 몸의 주체의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감각과 충동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힘에의 의지를 규제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윤리나 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20) 니체, 『도덕의 계보』, 395쪽 참조.

21) 같은 책, 398쪽 참조.

22) 최종천, 「니체철학에서 양심의 가책 : 『도덕의 계보』 「제2논문」을 중심으로」, 93-94쪽 참조.

23) 니체, 『도덕의 계보』, 397쪽 참조.

24) 전성택, 「니체의 자유정신에 관한 연구」, 21-29쪽 참조.

스스로에 대한 자유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몸 주체의 자유와 주권적 개인의 강인함이었던 양심은 개인이 국가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갔다. 양심을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해한 이성주의자들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감성으로 이해한 공리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퇴색된 의미의 양심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양심은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의 제거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된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강한 자들의 특성이다. 이는 공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비이기적인 덕목이 아니라 강한 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지배적인 덕목에 더 가깝다.

2. 원한, 죄, 그리고 양심의 가책

기존의 도덕이 인간의 도덕성을 설명할 때, 죄와 양심의 가책을 기반으로 한 비이기적인 도덕이 인간다운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비이기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왔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에 반대하여 죄와 양심의 가책을 인간다운 도덕의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해 죄나 양심의 가책 등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질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설명했다. 즉 니체는 죄와 양심의 가책의 원인을 비이기적 성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리적-심리적인 이유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했다.

니체에게 죄는 인간의 비이기성을 드러내는 도덕 개념이 아니라, 오랜 형벌의 고통을 통해 얻어진 채무감정이다. 또 양심의 가책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 갑작스러운 사회적 구속으로 인해 모든 가치를 잃게 되었을 때 생기는 심각한 병²⁵⁾이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에서의 죄, 의무, 의무의 신성함 등의 발생지는 채무법이다. 과거의 인간은 타인에게 잔인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쾌감을 얻고자 했다. 다시 말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대가에 맞는 형벌을 줌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쾌락을 얻으면서 피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해소했다. 니체는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이 잔인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래적이 성향이고, 그것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발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고 보았다.

25) 같은 책, 420쪽 참조.

인간은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심리적인 쾌감을 얻었다. 또한 그들은 형벌 자체를 즐거운 축제라고 여겼다. 인간의 양심이 잔인함의 축제로 이어진 것은 고통으로부터 오는 쾌감이 귀족들의 고급문화에 맞춰 신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잔인성이 원한의 도덕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전도되면서 야만적인 것, 비인간적이고 수치스러운 것 등으로 변모했다.²⁶⁾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 과정이 기존의 도덕 개념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양심을 도덕에서의 비이기성으로 전도시켰다. 또 죄와 양심의 가책을 잔인한 형벌을 내리지 못했을 때 오는 허무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적인 성향으로 만들었다. 니체는 양심의 가책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죄와 형벌의 기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또한 형벌의 본래적인 의미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도덕 개념을 계보학적으로 탐구하였다.

1) 형벌과 죄의 기원

니체는 죄(Schuld)라는 개념이 부채(Schulden)라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²⁷⁾ 형벌은 일종의 보복으로, 죄책감이나 도덕 개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죄와 부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이란 본래 가치를 재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존재, 즉 평가하는 동물²⁸⁾이다. 고대부터 인간의 사유 속에는 모든 것은 가치를 지니며 대가로 지불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잠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변상되어야만 한다는 소박한 도덕 기준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죄와 형벌의 등가교환의 논리도 성립되었다.²⁹⁾ 즉 니체는 고통스러운 피해에 대한 분노를 가해자에게 형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변상받으려는 피해자의 의욕이 죄와 형벌의 기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든 손해는 그 어딘가에 등가물이 있으며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학적인 이유로 죄와 부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³⁰⁾

이때 손해와 고통의 등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성립한다. 니체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되갚을 것이라는 약속에 신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이 한 약속의 진지함과 성스러움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상

26) 같은 책, 406-407쪽 참조.

27) 같은 책, 420쪽 참조.

28) 같은 책, 412쪽 참조.

29) 같은 책, 413쪽 참조.

30) 같은 책, 403쪽 참조.

환을 의무나 책임으로 자신의 양심에 새기기 위해서, 계약의 효력은 그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가 그 외에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그 밖에 그의 권한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자신의 육체나 자신의 아내, 혹은 자신의 자유, 또는 자신의 생명 역시 저당 잡히는 것이다. … 더구나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육체에 온갖 종류의 능욕과 고문을 가할 수 있었다.“³¹⁾

이와 같이 망각의 동물인 인간들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성립하려면 기억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약속하고 저당 잡히고 서약을 하기 위해 망각을 제거해야 하며, 기억을 만들기 위해 얼마간의 공포심을 이용해야 했다. 역사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억을 심기 위해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행해 왔다. 또한 오래 전부터 인간은 합법적으로 신체의 가격을 산정해 왔으며 부채의 액수에 맞게 그만큼의 육체를 도려내기도 했다. 이러한 배상 형식은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대신 채권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으로 일종의 쾌감을 누릴 권한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채무관계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악을 저지르는 즐거움, 육욕적 쾌락, 폭행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³²⁾

선사시대의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은 근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 살면서 평화의 이익을 누렸다.³³⁾ 대신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채무자로서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방되었다. 그들은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는 것을 비참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형벌로 간주했다. 그들은 공동체에 저당 잡히고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에서 받은 이익을 변상하고자 했다. 만일 누군가 공동체로부터 받은 이익을 상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그는 사회적 평화를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범죄자는 자신의 재산이나 이익을 상실하고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는 벌을 받는다.³⁴⁾

그러나 시간이 흘러 공동체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잔인한 처벌은 점차 완화되어 갔다. 공동체는 개인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죄자가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힘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형법은 원래 강한 자들이 자신에게 예속된 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원한을 자신에 대한 분노로 직접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었다. 공동체에서도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성으로의 법이 아니라 손해의 확실한 등가물을 규범으로 삼아 원한을 보

31) 같은 책, 404쪽.

32) 같은 책, 404-405쪽 참조.

33) 같은 책, 413쪽 참조.

34) 같은 책, 414쪽 참조.

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즉 법의 기원은 피해자의 복수의 감정을 규범의 형태로 타협시킴으로써 구성원 간의 투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 시키는 수단이었다. 법은 범죄 행위를 당한 당사자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타협의 역할을 하고, 사건을 국한시켜 작은 사건이 더욱 확산되거나 일반화되는 일을 예방하며, 범죄자와 범죄 행위를 분리시켜 직접적인 복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공동체가 수용하는 인원이 늘어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구성원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의 등가물이었던 잔인한 처벌은 그 효용성을 잃고 인간의 복수의 감정은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원한 그 자체로 남았다. 형법은 나중에 위법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치 인간적인 관용인 것처럼 변질되었다.

사회에서의 법률은 인간의 행위를 비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옳음(법)과 옳지 않음(불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단순화시켜 규제하고자 했다. 또한 법은 공동체의 평화에 위협이 될만한 개인적인 행동을 처벌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인간이 비이기성을 도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만들고, 보편적인 규율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게끔 만들었다. 한편 모든 것은 변상 되어야만 한다는 인간의 소박한 도덕 규범이 사회의 법에 의해 또다시 억압되자, 해소되지 못한 채무 감정은 본성에 대한 원한 감정으로 변화되었다. 니체의 계보학의 중심에는 '르상티망(ressentiment)'³⁵⁾이라는 도덕 감정에 대한 분석이 있다. 원한 맺힌 자기 혐오를 의미하는 '르상티망'은 '다시 느낌(re-feeling)'이란 뜻으로, 특별히 자신의 무력(無力)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불어의 동사 르상티르(ressentir)는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증오나 미묘한 실망감을 의미한다.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억압으로 인해 생겨난 이 도덕 감정은 인간이 공동체의 법을 어길 때마다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원한의 인간에 의해 양심의 가책으로 해석된다. 니체에 따르면, 죄의식의 근원은 인간의 본성을 해소하지 못하게 막는 사회적인 법에서 생겨난 것이다. 잔인성으로부터 오는 쾌감의 등가교환을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인간은 자신의 무력감에 허무함을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원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³⁶⁾

2) 원한과 양심의 가책

니체에 따르면, 양심의 가책은 원한의 인간들에게서 발생한다. 양심의 가책은 사회의 평화와 구속으로 갇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작된다. 인간은 사회와 평화안으로 갇히는 순간 그들의 자연적 본능은 가치를 상실하고 정지되어 버린다. 즉 아

35) 권정기, 「르상티망」, 72-74쪽 참조.

36) 니체, 『도덕의 계보』, 419-420쪽 참조.

만, 전쟁, 방랑, 모험에 잘 적응한 자연적 인간이 본능의 가치를 상실하자 그간 그들을 생존으로 안내했던 본능이라는 안내인이 없어진다. 본성을 억압당한 인간은 자신의 의식 능력 하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간다. 그 능력은 정신적인 가치, 사유, 추리, 계산, 인과의 결합으로 축소된다.³⁷⁾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순 없다.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 고양됨에 따라 본능은 발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와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면화된 본능은 반자연화 되고, 자기 증오, 즉 양심의 가책으로 변화한다. 니체는 인간의 발산되지 못한 본능이 원한의 인간에 의해 양심의 가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모든 본능은 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인간의 내면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 ... 오랜 자유의 본능에 대해 국가 조직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저 무서운 방어벽은 거칠고 자유롭게 방황하는 인간의 저 본능을 모두 거꾸로 돌려 인간 자신을 향하게 하는 일을 해냈다. 적의, 잔인함과 박해, 습격이나 변혁이나 파괴에 대한 쾌감-그러한 본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다."³⁸⁾

이와 같이 원한의 인간은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심의 가책을 사용했다. 국가의 성장과 평화적 구속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로운 본능과 현실이 단절되면서, 인간은 생존의 방향을 잃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 원한의 인간은 허무로 인한 고통의 원인을 인간 자체에게로 돌려 그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만들었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국가는 원한의 인간이 더 이상 자연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니체는 "세계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보편적인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며, 독립적인 귀족을 제압하여 행해지는 전체 정치는 언제나 일신교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달한 최대의 신인 그리스도교의 신의 출현은 또한 최대한 채무 감정을 지상에 나타나게 했다."³⁹⁾라고 하며, 역사적으로 국가들의 규모가 커지면 대부분 보편적인 신을 찬양하고 전체 정치가 일신교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신 또한 국가와 민중 간의 채무 관계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았고, 공동체가 커질수록 이 채무 감정이 더욱 깊어져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보았다. 니체는 의도적으로 양심의

37) 같은 책, 431쪽 참조.

38) 같은 책, 같은 곳.

39) 같은 책, 439쪽.

가책이라는 개념을 종교와 무관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죄와 의무의 개념도 도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채권자에 해당하는 인간의 제일 원인, 즉 그리스도교의 신은 스스로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채무자가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⁴⁰⁾ 즉 원한의 인간은 인간의 잃어버린 본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인간 자체를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은 인간의 죄책감을 도덕화하여 자연적 본성을 악으로 취급하고 생존을 더욱 허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결국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까닭은 사회의 강제적인 구속과 외부의 변화에 있으며,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 자신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분리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도덕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도덕 개념과 그 근거로 사용되는 죄와 양심의 가책은 모두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이란 원래부터 비이기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비동물적인 존재로 훈육된 것이다. 외부의 변화로 인해 자기 자신의 내면화 된 본능이 원한을 만들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원한의 인간들로 하여금 금욕적인 도덕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Ⅲ. 금욕주의적 이상과 가치전도

니체는 양심의 기원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에 의거하여 인간의 죄와 의무에 관한 발생사를 역사적이고 심리학적인 눈으로 살펴보았다. 양심의 가책은 사회적 평화에 종속되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동물적 본성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행하게 된 자기 학대이다. 그러나 기존의 도덕 학자들과 성직자들은 양심의 가책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이 느끼는 자연적인 본성들을 악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원한 감정을 예술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공동체 속에서 비이기성을 도덕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좀 더 준엄하게 만든 것은 기존의 도덕 학자들과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로, 양심의 가책을 도덕화하고 인간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 이러한 학대에 대항해서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강한 자를 병들게 하는 도덕이라고 비판했다. 도덕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내세우는 가치의 기준은 원한의 도덕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직 영원불변한 초현실의 세계를

40) 같은 책, 441쪽 참조.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삶에 적대적인 이상들은 근본적으로 원한의 도덕이며 이는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이어진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들이 모두 금욕주의적 이상이며, 허무를 향한 의지라고 비판⁴¹⁾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적 이상을 경계해야 하며 인간의 본성과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도덕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로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금욕주의적 이상

1) 철학자의 금욕주의적 이상

니체는 기존 철학자들의 도덕 가치가 금욕주의적 이상을 향한다고 본다. 금욕주의는 철학자들에게 더 높은 정신성을 마련해주는 최적의 조건이지만,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윤패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경우, 자신이 진정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금욕주의를 신봉한다.⁴²⁾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고 의지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긴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삶의 의지이기 때문에 무한한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인간은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갈망하지만, 이는 순간적인 행복일 뿐 언젠가는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맹목적인 삶의 의지라 일컬었다. 맹목적인 삶의 의지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맹목적인 삶의 의지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욕구의 충동에 집착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삶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인간 행위의 배후에는 성욕과 같은 맹목적 의지가 차지한다.⁴³⁾ 쇼펜하우어는 이런 맹목적 의지를 벗어나기 위해 금욕주의적 생활을 추구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의지의 부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다.

반면 니체는 금욕주의적 생활이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를 잠시만 진정시킬 뿐 결국은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은 사회의 강제적인 구속과 평화에 간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쓰였던 자연적 본성의 가치를 잃었다. 전쟁, 육욕적 쾌락, 폭행 등을 즐길 수 없게 된 인간은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에 이른다. 금욕주의적 생활은 철학자들이 충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관심이며, 육욕적인 행동으로 해소할 수 없는 자연적인 본능을 더 높은 정신성으로 잊으려고 하는 자기 기만이다. 철학자들은 최고의 정신성을 추

41) 같은 책, 446쪽 참조.

42) 강용수,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88쪽 참조.

43) 양해림, 「니체의 실존적 비극과 쇼펜하우어의 예술 철학과의 관계」, 264쪽 참조.

구하면서 관능을 제어하고, 소란, 잡담 등 요란한 것들을 피해 독립된 황야의 삶을 선택하지만 궁극적으로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철학자들의 진리를 향한 고통은 결국 금욕주의적 이상을 만들 뿐이다.

철학자는 무조건적인 진리를 삶의 본질로 설정한 뒤 그곳에서 오류를 찾는다. 예를 들어 "배단타 철학의 금욕주의자들이 한 것처럼, 육체적인 것을 환영으로 격화시키고, 동시에 고통이나 다수성도, '주관'과 '객관'이라는 개념의 대립 전체도 격화시킬 것이다."⁴⁴⁾라고 한 것처럼, 철학자들은 무조건적인 진리를 위해 정신적인 활동을 고수하며 금욕주의적 태도를 유지한다. 그들은 감각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실재성을 부정하며 육체적인 욕구를 멀리한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 평가는 인간을 허무주의로 이끈다. 기존의 서구 철학에서 참으로 간주 되었던 진리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허무를 향한 의지일 뿐이다. 진리에 대한 설정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자연성을 원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진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생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제한다. 이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을 폄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체는 탈중심적인 관점주의의 철학을 주장했다. 니체는 도덕의 형이상학적 사유방식과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부정한다. 이는 신, 진리를 포함한 모든 가치의 해체를 가져온다. 그는 삶의 조건으로서 비진리를 용인하는 것⁴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상으로 보았다.

니체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높은 정신성이나 진리가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니체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 폭력을 가하는 도덕보다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도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철학자들이 금욕주의적 이상에서 벗어나려면 계보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도덕을 전면적으로 비판해야 하고, 도덕에서의 가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성직자의 금욕주의적 이상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성직자의 도덕이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인 평화에 구속되기 이전 시기에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 도덕 그 자체였다. 고통과 잔인성이 덕으로 통용되었고, 이에 반해 평안, 지식욕, 평화, 동정 등은 위험으로 통용되었다. 그때 당시의 윤리는 동정받는 것과 노동은 모욕이었고, 광기가 신성이었으며 자연성의 거부가 부도덕적이고 불행 자체를 품고 있는 것으로 통용되었다.⁴⁶⁾ 그러나 이런 가치 체계는 명상적 인간이

44) 니체, 『도덕의 계보』, 481쪽.

45) 니체, 『선악의 저편』, 19쪽 참조.

등장한 이후로 그 의미가 전도됐다.

명상적 인간은 철학자들과 달리 현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생존에 적대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세계를 원한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죄책으로 만든 자이며, 인간의 도덕을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만든 자이다. 니체가 비판했던 기독교적 윤리들은 명상의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실재에 대한 혐오를 불러오는 도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명상적 인간의 비활동적이고 비전투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불신을 일으켰다. 명상적 인간은 애매한 모습이나 위장한 모습 때문에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경멸당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권위와 경외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본능을 거세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혁신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인습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⁴⁷⁾ 명상적 인간은 풍습의 윤리나 인습을 극복하기 위해 금욕주의적 이상을 사용했다. 그는 금욕주의적 이상을 표명하기 위해 세계에 부정적이고 삶을 적대시하는, 즉 감각을 믿지 않고 관능에서 벗어나 초탈하는 태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⁴⁸⁾

원한의 인간에게 금욕주의적 이상은 자신의 실존을 증명해주는 수단이며,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성직자들에게 금욕주의적 이상은 권력의 최상의 도구이자 권력을 획득하는 최고의 면허를 의미한다.⁴⁹⁾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자신의 신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 힘, 관심을 저 이상에 포함시킨다.⁵⁰⁾ 이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삶에 적대적인 종족들을 되풀이하여 증식시킬 수 있었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기교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덜된 자, 부조화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자, 스스로 괴로워하는 자들의 전체 무리를 이끈다.⁵¹⁾ 그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목자의 자리에 서서 현실에서의 고통과 죽음에 대항하도록 만들었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삶의 권태와 피로에 병든 인간들에게 동정이나 구원과 같은 긍정할 만한 것을 주면서 자신의 추종자를 더 많이 늘렸다.⁵²⁾ 그러나 이러한 금욕주의적 이상은 삶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 궁극적으로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니체는 이런 동정의 도덕을 비판

46) 니체, 『도덕의 계보』, 475쪽 참조.

47) 같은 책, 477쪽 참조.

48)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49) 같은 책, 451쪽 참조.

50) 같은 책, 478쪽 참조.

51) 같은 책, 484쪽 참조.

52) 같은 책, 485쪽 참조.

하며 이는 곧 인류 전체의 나약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이기성을 최고의 덕이라고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도 본질적으로 금욕주의적 이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도덕에서의 가치 전도를 시도한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과 죄 개념은 성직자적인 도덕에서 등장했으며, 그들은 강한 자들의 도덕에 원한을 가지고, 그들의 자연적이고 지배적인 본성에 복수하고자 했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악하다고 여기고, 금욕주의적인 도덕을 선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을 덕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체적인 윤리를 옳다고 여겼다.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사회의 구속과 문명화를 겪으면서 자연적 본성을 잃고 국부적인 생리적 장애를 겪게 됐다. 자연적 본성이 거세된 인간은 금욕주의적 이상을 통해 잠시나마 자신의 생리학적인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때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해석한다. 성직자들은 원한의 방향을 인간 스스로에게 되돌려 인간의 무절제한 감정을 죄책으로 바꾼다. 이에 고통받는 자들은 자신의 고통 자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이해한다. 나약한 자들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자신의 생리적 장애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며, 인과적으로 자신의 벌을 해결하기 위해 금욕주의적 이상을 추구한다. 그들은 현재의 삶을 부정하며 다른 세계의 삶에서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가책한다. 니체는 이런 자기 가책을 인간의 가장 커다란 병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간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병자이다: 악인이나 ‘맹수’가 아니다. 처음부터 실패자, 패배자, 좌절된 자-가장 약한 자들인 이들은 대부분 인간의 삶의 토대를 허물어버리고, 삶이나 인간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가장 위험하게 독을 타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다."⁵³⁾

니체에 의하면, 성직자에 의해 형성된 원한의 도덕은 인간에게 병을 일으킨다. 원한의 도덕은 인간의 삶의 토대를 허물어버리고 강한 자의 도덕을 전도시킨다. 성직자적 도덕은 건강한 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니체는 "강자에게 닥치는 재앙은 가장 강한 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에게서 온다. ... 두려워해야 할 것, 다른 어떤 숙명보다도 숙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커다란 공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커다란 혐오이다."⁵⁴⁾라고 한 것처럼 원한의 인간은 강자에게 인간에 대한 커다란 혐오를 심어준다. 원한의 인간은 잘난 인간들이나 승리한 인간들을

53) 같은 책, 487쪽.

54) 같은 책, 486쪽 참조.

중요의 대상으로 만들며 인류 전체에 대한 성장을 방해한다. 그들은 약하고 박해받는 자만이 선한 인간이며, 의로운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비이기적이고 자기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덕은 인간의 본성적인 도덕이 아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도덕은 금욕주의적 성직자가 강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전도시킨 약자의 도덕이다. 이러한 약자의 도덕은 결국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를 가져온다.

원한의 인간은 도덕에서의 노예반란⁵⁵⁾을 일으켜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하는 도덕을 형성시켰다. 니체는 이러한 원한 도덕이 현대의 도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된 가치체계를 원래의 가치체계로 전복시켜야 한다.⁵⁶⁾ 니체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전도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위에 있는 자는 밑에 있는 자의 도구로까지 자신을 격하시켜서는 안 되며, 거리의 파토스는 또한 영원히 양자의 임무를 마땅히 분리시켜야만 한다! 그들의 생존의 권리, 음조가 틀리고 깨져버린 종(鐘)에 대해 완벽한 음조를 지닌 종의 특권은 실로 천 배나 더 큰 것이다: 그들만이 미래의 보증인이며, 그들만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병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며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⁵⁷⁾

이와 같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 전도된 가치체계는 무리의 도덕이며 동정의 도덕이다. 동정의 도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자들은 병자를 멀리해야 하며, 약자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고독해져야 한다.⁵⁸⁾ 동정의 도덕은 전통적인 도덕 개념에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비이기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비이기적인 도덕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개인적인 도덕을 정립해야 한다.

55) 니체는 도덕 이전의 자연적 가치인 좋음과 나쁨(좋음이란 상승의 기분, 자기 확신이 되는 느낌이다. 이것은 고귀한 인간에게서 확인되는 것들이다. 반면에 나쁘다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자신감을 잃을 때, 무력감에 수치심을 갖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좋음과 나쁨이란 도덕 이전의 자연적 가치들이다.)이 세습성직자의 손에 의해서 왜곡되었다고 본다. 유대의 사제들은 고귀한 인간이 표방해온 좋음과 나쁨이란 자연적 가치를 선과 악이라는 노예적 가치로 바꿔 놓았다고 본다. 이런 역전 과정에서 고귀한 가치는 악한 것으로 노예적 가치는 오히려 선한 것으로 둔갑한다. (이화란, 「니체의 도덕 철학에 관한 연구 :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22쪽 참조.)

56) 니체, 『도덕의 계보』, 515쪽 참조.

57) 같은 책, 490쪽.

58)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2. 가치 전도와 새로운 도덕의 정립

1) 도덕에서의 가치 전도

니체가 미래의 도덕 학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새로운 철학은 도덕에서의 가치 전도이다.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는 기존의 도덕 가치가 반자연적이며 원한의 도덕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탐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도덕 개념은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나아가고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과 허무주의로 귀결된다. 니체는 기존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다움이라고 여겨지던 기존의 도덕 개념들을 모두 부정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 주장하는 양심 개념이나 보편적인 선 개념, 인간의 비이기성 등을 부정하며 자신을 반도덕주의자⁵⁹⁾라고 선언했다.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은 다윈과 쇼펜하우어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이다. 니체는 인간의 감정과 사고 모두 삶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덕의 보편성을 생리학적 관점에서 비판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정보다 욕구나 충동에 집중하여 인간의 도덕성이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양심의 근원을 추적해보았을 때 인간도 동물처럼 야만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폭력적인 것을 즐기고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인간의 양심이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 생각하는 선함과 다른 형태의 본성임을 보여준다. 이는 자유롭고 지배적이었던 인간이 사회의 평화에 구속됨으로 인해 비이기적이고 반자연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도덕 개념이 있기까지 인간은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을 버리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형벌과 고문을 겪어야 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양심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전통 도덕 개념은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런 도덕 개념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삶에 부정적이었던 원한의 인간들이 강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도시킨 도덕 개념이다. 즉 인간다움을 상징하는 죄와 양심의 가책 등의 기원은 강한 자들에 복수심을 지니고 있던 약한 자들의 도덕이며, 동정심과 이타심 등의 공동체적 사상의 기원 또한 원한의 도덕이다. 우리는 이러한 약자의 도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인간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온 도덕적 선입견들을 모두 부정할 필요가 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 함축하고 있는 원한 도덕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에

59) 니체, 『선악의 저편』, 340쪽 참조.

서의 모든 가치를 전도시키고자 했다. 니체는 지금까지 전승해온 도덕 개념을 인간의 자연성을 부정하는 노예 도덕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주인 도덕으로 전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노예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그 자체로 긍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도덕 개념이다. 노예는 욕구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과 맞서 싸울 힘이 고갈된 인간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삶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구, 열정, 충동, 정념을 통제하고 조절하기에는 나약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구와 충동을 거세할 수단을 찾았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욕망과 정념을 근절하고 거세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선’이라는 이름으로 고안해 냈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하고 지쳐버린 삶을 위해 결국 삶에 독을 푸는 가치들에서 은신처를 구했다. 이처럼 노예 도덕의 가치는 주인 도덕의 가치와는 대립된 수동적인 삶을 의미한다.⁶⁰⁾

니체는 지금까지의 노예 도덕에 반대하며 인간의 본성적인 도덕으로 주인 도덕을 제시한다. 주인 도덕은 좋음이라는 가치 평가를 좋은 인간들에게서 찾는 것이다. 그것은 저급한 모든 사람, 저급한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 비속한 사람, 천민적인 사람들에게 반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제일급으로 느끼고 좋다고 평가하는 고귀한 사람, 강한 사람, 높은 뜻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⁶¹⁾ 고귀한 자, 즉 출신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설득하고 기만할 필요가 없다.⁶²⁾ 그들은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이며, 힘이 가득 차고 행복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 주인 도덕은 좋음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으며 자발적으로 good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의 도덕이다.

니체는 삶의 주인이 되는 좋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때 좋은 인간들이란 거리(distance)의 파토스를 지닌 인간들이다. 그들은 공리적인 성향과 거리가 멀고 귀족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더 높은 지배 종족이 더 하위의 종족에게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지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고귀함과 강함을 약하고 저열한 사람들을 향해 낮추려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자신의 도덕을 지킨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며, 자기 멸시나 관능에 대한 혐오를 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러한 주인 도덕을 통해 도덕에서의 가치를 전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⁶³⁾

니체가 생각하는 주인 도덕은 절대적 가치를 탈가치화 한다. 이는 이기심과 이타심,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구별되는 도덕 개념이 아니다. 니체는 도덕

60) 김세욱, 최소인, 「니체의 반도덕주의와 자기 긍정의 윤리」, 496-497쪽 참조.

61) 니체, 『선악의 저편』, 19쪽 참조.

62) 같은 책, 369쪽 참조.

63) 강용수,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21쪽 참조.

에 선과 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며, 가치의 기준을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 도덕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주인 도덕으로의 가치 전도와 새로운 도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주도적이고 강한 인간상이 필요하다. 니체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상을 위버멘쉬(Übermensch)라고 부른다.

니체가 말하는 미래의 새로운 인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이다.⁶⁴⁾

첫째,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자기 극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그가 힘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힘에의 의지를 가치 설정의 원칙으로 하여 삶의 가치를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이며, 자신에 대한 지배력과 자유를 자기 극복의 계기로 삼는다.

셋째, 삶에 적대적인 형이상학적 이분법과 절대적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기도 하다.

넷째,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평가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존재이다. 자기 극복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가치평가와 의미 부여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기 입법적인 존재이자 자기 증명적인 존재다. 그는 주인 도덕의 담지자다.

여섯째,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하는 힘의 느낌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인간이다.

니체는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자를 위버멘쉬라고 부른다. 니체는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간형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2) 인간과 삶을 긍정하는 도덕의 정립

기존의 도덕 개념의 문제는 인간과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덕 개념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을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도덕의 가치 체계를 왜곡시켰다. 그들은 인간의 감각과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정신적 능력의 향상은 인간에게 최선의 삶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기존의 도덕의 가치체계는 영혼과 육체, 참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금욕주의적 이상을 추구하게 됐다. 니체가 보기에 종래의 이분법적인 가치 체계는 인간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삶에 대한 허무주의는 지금까지의 가치 평가들이 초래

64)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229쪽 참조.

한 필연적인 귀결이다.⁶⁵⁾

『도덕의 계보』 제3논문에서 니체는 현대 과학도 삶을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비판했다. 현대 과학은 기존의 철학들처럼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진리라는 하나의 명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금욕주의적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현대 과학을 통해 인간은 세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허무주의로 귀결된다. 과학의 승리는 결국 인간의 자기 왜소화를 발생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유일성, 대체 불가능성을 무시한다. 모든 과학은 자만, 자기멸시를 함축하며, 인간에게 스토아적인 평정심을 갖게 만든다.⁶⁶⁾ 그러므로 니체는 과학적 가치가 전제하는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설정 자체를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⁶⁷⁾

형이상학적 신앙은 결국 또 다른 금욕주의적 이상을 형성한다. 형이상학적 기준에서 증명되지 않는 다른 특정한 상황들은 또다시 인간 자체에 대한 멸시를 낳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의 수적인 믿음은 결국 진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의지를 만든다. 따라서 신적인 것만이 형이상학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형이상학적 신앙이 될 수 있다. 니체는 진리를 향한 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적 가치 평가를 멀리하고 예술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세우고자 한다.⁶⁸⁾ 이점에 관해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플라톤 대 호메로스: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진정한 적대 관계이다-전자는 최선의 의지를 지닌 '저편 세계의 인간'이자 삶의 위대한 비방자이고, 후자는 의도하지 않은 삶의 숭배자이자 황금의 자연이다."⁶⁹⁾

니체에 의하면, 호메로스는 문학을 통해 삶을 숭배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도덕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처럼 인간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덕 개념은 인간의 실패나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로 인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 결여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 그러나 새로운 철학의 시도를 위해서 니체는 대지의 삶 속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과 쾌락을 모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⁰⁾

삶을 긍정하는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 강조했던 모든 가치체계를 무너뜨릴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인간이 설정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65) 같은 책, 198쪽 참조.

66) 니체, 『선악의 저편』, 134쪽 참조.

67) 니체, 『도덕의 계보』, 528쪽 참조.

68) 같은 책, 같은 쪽 참조.

69) 같은 책, 528쪽.

70) 같은 책, 같은 쪽 참조.

믿음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분법적인 가치 대립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된 것, 진실한 것, 무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기반에의 의지이다. 삶의 조건으로 고통과 비진리를 용인하는 것⁷¹⁾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긍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습관화된 가치 평가에서 벗어나 긍정과 부정의 저편, 선과 악의 저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진리라는 설정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와 자기 경멸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불확실성을 긍정하는 최고의 가치에서 탈가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철학은 진리가 절대적인 중심이 되는 철학이 아니라 다수의 인간이 해석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긍정하는 철학이어야 한다.⁷²⁾

IV. 결론

니체는 기존의 철학이 겪고 있는 허무주의와 인간 소외의 원인을 인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통 철학자들은 진정한 인간다움을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비이기적인 성향으로 보았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의 비이기성과 욕구 희생을 인간다운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도덕성, 즉 선, 악, 죄 등이 다른 기원으로 생겨났으며, 그것을 계보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니체는 인간의 도덕성을 표명하는 기존의 도덕 가치들이 사실은 인간을 혐오하는 원한의 도덕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인간을 허무주의로 이끄는 기존의 도덕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치를 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체에 따르면, 양심은 이타적이고 관용적인 의미의 도덕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지배적인 사람에게서 등장한 특성이다. 양심을 지닌 자는 기존의 철학이 주장하는 성직자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강하고 지배적인 특성을 지닌다. 양심을 지닌 인간들은 약한 자들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지며 자신을 주권적 개인으로 파악한다. 주권적 개인은 강한 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

71) 니체, 『선악의 저편』, 19쪽 참조.

72) 니체가 도덕적-형이상학적 믿음의 세계를 부정한 것은 인간이 근본적 긍정과 근본적 부정 사이에서, 절대적 퇴락의 가능성과 허무주의 극복 가능성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니체는 허무주의 상황과 관련해서 위버멘쉬의 가치의 새로운 설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가치의 새로운 설정자로서의 인간은 기존의 절대적 이성과 도덕의 붕괴에서 오는 허무주의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변화가 요청된다. 인간의 변화는 자기 자신을 가치의 설정자이자 창조자로, 해석의 주체로 긍정해야만 가능하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해석의 주체로 인정하면 궁극적으로 그 존재 자체는 인간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음을 긍정한다. 절대성의 포기과 상대적 진리의 유의미성 확보, 바로 여기서 니체는 궁극적인 허무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본다. (김은정, 「니체에 있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인간상에 대한 연구」, 13쪽 참조.)

인 입법 윤리가 아니다. 양심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운명을 극복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다. 기존의 도덕 개념에서 설명하는 양심은 동물적인 인간을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풍습의 윤리이며 반자연적인 도덕이다. 주권적 개인은 풍습의 윤리를 따르지 않고, 삶의 가치를 스스로 구성하는 자이다.

우리는 니체의 도덕 비판을 통해 양심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처음부터 비이기성이 내재하고 있지 않다. 강한 인간은 귀족처럼 자기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다. 따라서 기존의 도덕 학자들이 말하는 이타성, 배려, 관용, 사랑 등은 인간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공동체 생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훈육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덕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가치 판단을 강요해왔다. 기존의 이성 중심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인 판단력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고,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인간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비이기적인 행동들은 인간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 없이 만들어진 금욕적인 도덕 개념이다. 기존의 도덕 개념은 인간에 대한 자기 기만과 소외를 불러일으켰다.

니체는 이러한 도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 도덕, 위버멘쉬, 인간과 삶의 긍정, 기존의 도덕 개념에 대한 모든 가치의 전도 등을 제시한다. 니체가 주장하는 새로운 미래 철학은 이제까지의 절대적이고 형이상학적 진리에 기초한 도덕이 아니다. 그는 근원 중심적인 가치를 전부 거부하고 최고의 가치의 탈가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미래의 새로운 도덕은 인간의 불확실성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이며, 고통과 쾌락 모두를 긍정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 니체가 생각하는 미래의 인간은 스스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간형이다.

현대인들은 고도의 문명화로 인해 사회에서의 단절과 소외 문제를 겪게 되었다. 개인은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고, 사회적 제도나 경제체제로부터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니체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급속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인간이 당면하게 될 허무주의를 미리 예견했다. 그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자다. 니체는 현대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반자연적인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도덕을 창조하기 위해 삶 자체를 긍정하는 철학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을 위한 진정한 철학을 실현하려면 대지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쾌락을 긍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 교육은 기존에 형성된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도덕 교육은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결여한 채 노예 도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피동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니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다. 니체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도덕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금욕주의적인 도덕 개념을 비판해야 하며, 기존의 가치에서 탈가치화 된 수업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면서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도덕 교육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금욕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처방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은 반자연적인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선과 악 같은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니체의 저서

니체, 『선악의 저편』,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7.

니체,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7.

2. 단행본

강용수,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세창미디어, 2016.

김진석 외,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민음사, 2000.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이창재, 『니체와 프로이트』, 철학과현실사, 2000.

3. 학위논문

김은정, 「니체에 있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인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화란, 「니체의 도덕 철학에 관한 연구: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전성택, 「니체의 자유정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 학술지

강병호, 「칸트 윤리학과 니체의 도덕 비판: 자기기만, 존중과 거리의 파토스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14집(27 - 51), 2016.

김세옥, 최소인, 「니체의 반도덕주의와 자기 긍정의 윤리」, 『철학총논』 제80집(487 - 508), 2015.

권이선, 「칸트 양심론의 본질에 관한 고찰: 양심무오설과 양심법정설의 연계적 관점에서」, 『건지인문학』 제17권 0호(33-53),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권정기, 「르상티망」, 『현상과 현대철학』 제61집(65 - 90), 한국현상학회, 2014.

- 백승영, 「양심과 양심의 가책, 그 계보의 차이」, 『철학』 제 90집(107-133), 한국철학회, 2007.
- 양해림, 「니체의 실존적 비극과 쇼펜하우어의 예술철학과의 관계」, 『인문학연구』 105권(253-28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이광래, 「니체와 푸코: 니체의 상속인으로서의 푸코」, 『니체연구』 제4호 (9-28), 한국니체학회, 2001.
- 이진우, 「계보학의 철학적 방법론 : 니체와 푸코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73권(141-167), 2000
- 최종천, 「니체철학에서 양심의 가책 : 『도덕의 계보』 「제2논문」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66집(88 - 120), 범한철학회, 2012.
- 최호림,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고찰」, 『철학논구』 제36권 (141-158), 2008.